

환치사 ‘拿_x來說’에 대한 고찰

채 춘 옥*

〈目次〉

- | | |
|--|----------------------------------|
| I. 서론 | III. ‘拿 _x 來說’의 통사적 특징 |
| II. 연계사 이론과 환치사
‘拿 _x 來說’ | IV. ‘拿 _x 來說’의 의미적 특징 |
| | V. 결론 |

I. 서론

본 연구는 격 이론, 어순 유형론을 바탕으로 현대중국어 환치사 ‘拿_x來說’에 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부치사(adposition)는 명사에 붙는 문법 표지이고 그 위치에 따라 전치사(preposition), 후치사, (postposition), 환치사(circumposition)로 구분한다. 부치사의 위치에 따라 VO 어순에 해당하는 언어에서 하나의 부치사가 명사 앞과 명사 뒤에 분리되어 불연속적인 구조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부치사를 유형론에서 환치사라고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拿...來說’는 환치사 구조이다.

기존의 논의를 보면 陶振偉(2006)는 동사이던 ‘拿’가 연동구조에서 부차적인 동사로 쓰였고 청나라에 와서 이중 분석의 단계, 5·4후에 재분석을 거쳐 개사로 변했다고 하였다. 付琨(2009:29)에서 ‘來說’는 현대 중국어 160개 개사 중에서 40여 개와 조합하여 환치사를 이룬다고 하면서 기능은

* 국민대학교 글로벌인문·지역대학 중국학부 중국어문진공 부교수

개사구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馬青青(2009)은 ‘來說’의 문법화 과정과 기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三個平面’ 이론을 바탕으로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인 특징을 분석하였다.

환치사 구조에 관한 연구는 개별 부사에 대한 연구와 전반적인 연구로 나눈다. 개별부사에 대한 연구는 주로 ‘對(對於)…來說(說來)’의 통사,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이다. 王磊(1985)는 ‘來說(說來)’이 ‘對(對於)’ 뿐만 아니라 ‘按, 拿, 在’ 등 개사와 공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張豫峰(1999:61)에서는 ‘對(對於)…來說(說來, 而言)’은 의미와 용법이 비슷하다고 하고 통사적으로 보면 부사어로 쓰이는데 동사 뒤 또는 문두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화용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고정적인 구조는 어떤 사람, 사물, 사건을 언급하고 구 정보를 나타내며 화제의 형식 표지라고 하였다.

전반적인 연구를 보면 劉丹青(2002:241)은 환치사가 나타나는 원인과 기본 특징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명사구 앞뒤에서 전치사와 후치사로 구성된 개사구를 框式介詞(circumposition)라고 하였다. 陳昌來(2002)는 환치사 구조는 단어와 단어의 조합이고, 뒷부분의 단어도 명사, 방위사, 접속사, 조사라고 하면서 이런 구조를 ‘介詞框架’라고 하였다.

王茜(2004)에서는 ‘拿…來說’, ‘對…來說’ 두 구문은 의미의 중심이 다르다고 하였다. ‘拿…來說’은 해석, 설명을 나타내고 ‘拿’의 동사성이 강하지만, ‘對…來說’은 ‘針對性’을 나타내고 ‘對’의 동사성이 약하다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拿…來說’ 구조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큰 틀에서 여러 가지 환치사를 다루거나 다른 환치사와 비교하여 산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화자는 의사 표현을 위해 문장 중에서 동사와 연계된 어떤 성분을 화제로 삼을 수 있다.¹⁾ 그러므로 동일한 통사의미 구조이더라도 선택된 화제가 다르면 문장구조에서 변화가 생겨서 다양한 화용 가치를 생산한다. 화제 구조를 연구하면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신, 구 정보를 이해하고, 화자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문장

1) 주제(topic)는 화제라고도 한다. 본고에서는 ‘화제’를 사용한다.

형식의 변화에 대해 화용 방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²⁾.

본고에서는 환치사 ‘拿_x來說’ 구조에서 구성성분의 특징, 통사적 분포,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BCC 코퍼스를 참고하여 ‘拿_x來說’ 구조에서 x의 어휘 유형과 출현 빈도를 살펴보고 TTR(type/token Ratio)값을 통하여 어휘 종류의 다양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계사 이론과 환치사 ‘拿_x來說’

개사는 중국어에서 중요한 격표지이다. 金昌吉(1996)은 중국어 개사를 ‘주격(主體格)’, ‘대격(客體格)’, ‘여격(鄰體格)’, ‘탈격(時地格)’, ‘원인격(根由格)’, ‘관여격(關涉格)’ 등 6가지로 나누었다. 행동주와 관련된 ‘주격’, 피행동주와 관련된 ‘대격’, 동작이나 사건의 간접적 관여를 나타내는 ‘관여격’ 등은 모두 환치사 ‘拿_x來說’와 관련이 있다.

개사가 어순 유형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 직접적인 원인은 Dik(1997)의 연계사 이론으로 밝혀진 개사의 연계사 성질에 있다. Dik는 접속사, 개사, 격표지, 종속사(subordinators, 관계대명사라고 함), 수식어 표지(형용사 표지:traditional의 al), 부사표지(slowly의 ly), 속격표지(John’s room의 s) 등이 모두 연계사(relator)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것들의 공통적인 기능은 병렬 또는 종속 관계를 가지는 두 성분을 연결하여 더 큰 단위로 확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Dik는 두 가지 하위 항목을 포함하는 어순 원칙을 제시하였다.³⁾

연계사 우선원칙:

- i 두 개 연결된 성분 사이에 있다.
- ii 만약 연계사가 어떤 연결된 성분에 첨가되면, 연계된 성분의 가장 자

2) 溫鎖林 저(樸正九 역), 《중국어 화용론》, 신성출판사, 2005, 75쪽.

3) 劉丹青, 《語序類型學與介詞理論》, 商務印書館, 2003, 69쪽.

리에 위치한다.

‘연계사 우선원칙’은 강한 예측력과 이론적 힘을 가지고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구조가 많다. 많은 언어 자료를 보면 연계사 원칙이 아주 강한테 영어와 같은 전치 언어에서 전치사구는 일반적으로 ‘VP+전치사+NP’ 어순인데 전치사는 VP와 NP 사이에 있다. SVO 언어에서는 개사구가 그것이 수식하는 핵심에 후행하는데, 연계사를 연결된 두 성분 사이에 넣으려면 전치사를 꼭 사용해야 한다. 후치 언어에서 후치사구는 ‘NP+후치사+VP’ 순으로서 후치사는 NP와 VP 사이에 있다. SOV 언어에서는 개사구가 그것이 수식하는 핵심을 앞서므로 연계사를 두 성분 사이에 넣으려면 후치사를 사용해야 한다.

劉丹青(2003:127-128)에 따르면 개사의 연계사 원칙은 더 높은 층위의 큰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 도상상 원칙이다. 연계사는 두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인데 두 성분 사이에 있는 것이 도상성 원칙에 가장 부합된다는 것이다. 또한 Dik의 다른 총 원칙인 ‘핵심인접원칙(核心相近原則)’, Hawkins(1994)의 ‘직접성분초기구성원칙(直接成分盡早確認原則)’에 부합한다. 개사가 개사구의 핵심으로 NP와 VP사이에 있는 것은 개사를 높은 층위의 핵심(수식받는 동사)과 가장 접근하게 한다. 이들 원칙은 관련된 구조의 핵심이 가능한 가까이에 있을 것을 요구한다. 개사어중원칙(联系项居中原則)은 VP나 NP 내부의 직접적인 성분이 가장 빨리 확인되도록 한다.

劉丹青(2003:144)에 따르면 중국어에서 대부분의 전치사로 구성된 개사구 PP는 동사 앞(주어 앞 포함)에만 사용되어 전치사(前置詞)라고 할 수 있다. ‘於, 以, 自, 在, 到, 向, 往, 給’ 등을 가지는 PP도 동사를 앞선다. 또한 일정한 조건에서 동사에 뒤따르기도 하여 ‘쌍위치전치사(雙位前置詞)’라고도 한다. NP에 후행하여, NP와 같이 단독으로 하나의 구를 구성하는 개사가 후치사(後置詞)이다. 전치사와 후치사는 문장에서 환치사를 구성할 수 있는데, 진정한 후치사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후치한 부분은

원래 동사 앞의 조동사, 부사나 의미가 추상화된 연결성분일 수 있으나 전치사 PP가 동사를 앞설 경우에는 PP와 핵심사이의 빈 연계사 자리를 채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拿_x來說’는 환치사 구조이고 화제 구문이다.⁴⁾ 이 외에도 ‘比…更’, ‘跟…一起’, ‘以…來’, ‘對…來說’, ‘就…而言’, ‘爲了…起見’, ‘被…所’, ‘把…給’ 등이 있다. 환치사 구조의 뒷부분은 그 자체가 단독으로 의미역을 개입시킬 수 없으므로 임시적인 후치사로 간주할 수 있다. 환치사 ‘拿_x來說’는 ‘예시성화제(舉例性話題)’를 나타낸다.⁵⁾

Ⅲ. ‘拿_x來說’의 통사적 특징

‘拿’가 개사로 쓰이는 경우 도구(拿刀切), 재료(拿布作材料), 방식(拿事實證明) 등을 나타낼 수 있는데 환치사 구조인 ‘拿_x來’를 구성할 수 있다.

(1) 明天[拿]身份證[來]要錢可怎麼辦?

(1)에서 ‘來’는 그 자체가 도구 의미를 갖지 않고 도구 의미역 뒤에서

4)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에서는 [拿+名+來(去+動)](‘拿…來說’포함) 구문은 어떤 사람, 어떤 사물, 어떤 각도에서 문제를 보는지 나타내는데, 어떤 화제를 개입시키며 동사는 ‘說, 講, 看’ 또는 ‘比, 比較, 衡量, 分析, 觀察, 檢驗’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5) 전통적으로 주어, 화제(주제)와 관련하여 혼동론, 동등론, 구분론이 있는데, 胡裕樹(1982)는 최초로 엄격한 구분을 주장하였다. 그는 ‘주어는 문장내부 구조 성분으로서 통사층위에 속하고, 주제는 문장의 외부성분으로서 화용층위에 속한다. 양자의 구별은 아주 명확하며 합칠 수 없다.’고 하였다. 溫鎮林(2005:78)에 따르면 주제는 담화 기능의 개념으로서 화용범주에 속한다. 주제는 주어와 대립할 수도 있고 일치할 수도 있다. 주제는 문장의 외부성분(화용성분)으로서 주어 기능을 가질 수도 있고 문장의 기타 성분과 통사적 구조 관계를 맺지 않을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화제는 의사표현의 출발점이고 담화의 중심이며 일반적으로 구정보를 나타낸다고 본다.

연결 역할을 한다. 구조적 기원에서 보면 ‘來’가 뒤에 오는 동사와 더 긴밀하게 결합해야 하지만 ‘來’가 연계사로 종종 전치사 ‘用’, ‘拿’와 같이 나타나므로 ‘來’와의 구조 긴밀도는 강해진다. BCC에서 ‘用來v’는 30557회, ‘拿來v’는 6571회로 많이 사용된다.

‘來’는 다른 형태소와 함께 도구, 시간 기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관련된 대상을 나타내는 ‘就…來’, ‘拿…來’에서도 사용된다. 관련된 대상을 나타내는 용법은 ‘就/對/拿…來說/來講’과 같은 안정적인 구조로 변화한다. 이 구조에서 ‘來’는 ‘而’와 대응되는데 ‘就/對/拿…來說’과 대응되는 형식이 ‘就/對/拿…而言’이다. ‘就/對/拿…來說/而說’은 원래 임시적인 환치사였는데 형식이 고정화되고 ‘說/講/言’의 뜻이 추상화되면서 ‘就/對/拿…來說/來講/而言’과 같은 환치사로 문법화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⁶⁾

1. ‘拿x來說’에서 x의 출현양상

x는 단어, 구, 절 모두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어휘의 다양성(lexical diversity)을 측정하기 위하여 BCC 코퍼스에서 검색한 x의 TTR 값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표 1〉 x의 유형 빈도, 출현 빈도, TTR 값 비교

x	유형 빈도	비율	출현 빈도	비율	TTR
단어	330	32.87	440	37.70	75.00
구	657	65.44	710	60.84	92.54
절	17	1.69	17	1.46	100.00
합계	1004	100.00	1167	100.00	86.03

어휘 유형(type)은 언어자료에 출현한 각각의 서로 다른 어휘를 말하고,

6) 劉丹青, 2003, 142-144 참조.

어휘 구현(token)은 언어자료에 출현한 모든 어휘를 말한다. 강병규(2013: 149)에 따르면 TTR(Type-Token Ratio)은 단어의 총 출현 빈도와 단어 유형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다. TTR 값은 코퍼스에 사용된 어휘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TTR이 높을수록 어휘가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에서 유형 빈도와 출현 빈도를 보면 [구]단어>절] 순으로 나타난다. 빈도가 높은 단어와 구의 경우에 TTR 값을 보면 구가 단어보다 높아서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1) x가 단어일 때 명사, 대명사, 형용사, 겸류사(兼類詞: 동사, 명사) 모두 가능하다.

(2) 명사

- a 例如[拿]玩具[來說], 走進商店, 小孩的玩具令你眼花繚亂。
- b [拿]宗法觀念[來說], “文化大革命”中, 一人當官, 雞犬升天, 一人倒黴, 株連九族。
- c [拿]美國[來說], 1995年, 美國發起的反傾銷調查為14起。
- d [拿]去年[來說], 全村果品運銷戶發展到70多戶。

위에서 보면 일반명사(玩具), 추상명사(宗法觀念), 고유명사(美國), 시간명사(去年) 등이 나타난다.

<표 2> 명사의 유형 빈도, 출현 빈도, TTR 값

유형	유형 빈도		비율		출현 빈도		비율		TTR		
일반명사	136		43.16		154		41.96		88.31		
고유명사	이름	96	159	30.96	51.28	101	194	27.29	52.42	95.04 67.74	81.39
	장소	63		20.32		93		25.13			
시간명사	15		4.83		22		5.94		68.18		
합계	310		100.00		370		100.00		83.78		

BCC 코퍼스에서 검색한 결과 x가 일반명사인 경우 유형 빈도는 136회이고 출현 빈도는 154회이며 TTR 값은 88.31이다. 고유명사의 경우 유형 빈도는 159회이고 출현 빈도는 194회이며 TTR 값은 81.39이다. 고유명사는 이름과 장소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가 후자보다 유형 빈도, 출현 빈도가 많고 TTR 값도 높아서 다양성을 보여준다. 시간명사의 경우 가장 적게 나타났는데 유형 빈도는 15회이고, 출현 빈도는 22회이며, TTR 값은 68.18이다.

〈표 2〉에서 유형 빈도와 출현 빈도를 보면 [고유명사]일반명사]시간명사] 순으로 나타나는데, 고유명사가 전체 명사의 51.28%를 차지한다. TTR 값에서 본 어휘의 다양성은 [일반명사]고유명사]시간명사] 순으로 나타났다. 장소명사는 ‘美國’이 14회, ‘中國’이 9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北京市, 西藏, 天津, 廣東省, 倫敦, 洛杉磯, 深圳市, 德國’ 등이 2회로 나타났다. 시간명사에서 ‘現在’는 4회, ‘今年’은 3회 ‘去年’, ‘近期’는 2회로 나타났다.

(3) 대명사

- a 這其實是一種誤解。[拿]他[來說], 的確有好多機會, 可以下“海”。
- b 就[拿]我們[來說]吧, 我們仍然無法看清事情的來龍去脈。
- c [拿]我自己[來說], 我腦海裏卻在思索著黃昏初臨時我們當作話料的那個題目。
- d [拿]這兒[來說]吧, 你幹嗎把這些飛鳥安插在煙囪上面呢?

대명사는 인칭대명사 단수형(他), 복수형(我們), 재귀사를 이용한 이중재지시(複指關係-我自己), 지시대명사(這兒) 등이 나타난다. BCC 코퍼스에서 보면 x가 대명사인 경우 유형 빈도는 7회이고, 출현 빈도는 55회이며 TTR 값은 12.73이다. 구체적으로 ‘我’는 43회, ‘我們’은 4회, ‘你’는 3회, ‘這兒’는 2회, ‘自己’, ‘這個’, ‘您’은 1회로 나타났다.

(4) 검류사

- a [拿]檢査[來說], 要分析哪些該査哪些不該査.
- b 先[拿]玩兒[來說]吧, 站裏圖書室好看的書和錄像帶已經看得差不多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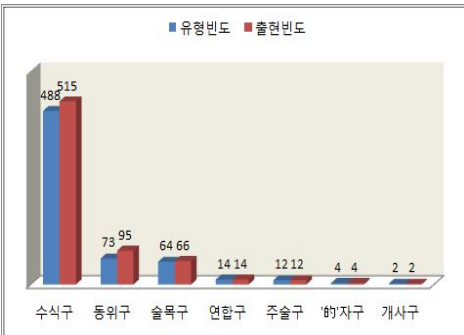
‘檢査, 睡覺, 玩兒, 洗澡’ 등 검류사가 14회 나타났다.

(5) 형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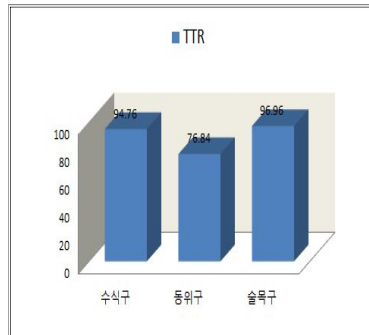
- a [拿]聰明[來說], 與其說它是一種能力, 不如說是一種運氣.
- b 學校推行常規評比流動紅旗制度, 他感覺很是跟不上形勢. [拿]清潔[來說], 他所在班的第一周得了9.4分.

형용사는 ‘聰明’, ‘清潔’만 나타났는데 이 구문이 형용사에 대한 제약성이 강함을 알 수 있다.

2) x가 구일 때 수식구, 동위구, 술목구, 연합구, 주술구, ‘的’자구, 개사구 등이 나타났다.



〈그림 1〉 x의 유형 빈도와 출현 빈도 비교



〈그림 2〉 x의 TTR 값 비교

유형 빈도와 출현 빈도를 보면 [수식구>동위구>술목구>연합구>주술구>‘的’자구>개사구] 순으로 나타난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수식구의 경

우에 유형 빈도는 74.28%, 출현 빈도는 72.74%이다. 빈도가 높은 구의 TTR 값을 보면 [술목구>수식구>동위구] 순으로 나타났다.

(6) 수식구

a ‘的’수식구가 쓰임

[拿]金牌的運動員[來說]是多麼遺憾!, 爲此美國只好做出決定...

[拿]有名的北京猿人[來說], 也有四五十萬年的歷史了。

[拿]他的功和過[來說], 錯誤畢竟是第二位的。

[拿]刺刀或步槍的人數[來說], 是十八萬二千二百人。

[拿]我們聽說過的一個例子[來說], 有個人想要擁有一份自己的事業。

[拿]搞文學研究工作的人[來說], 懂現代文學的, 未必懂古典文學。

[拿]比較多的墓志[來說], 它在最近50年裏邊, 已經公布的墓志材料有將近2000件。

就[拿]孟子所講的“仁”[來說], 他是以個人的感情能力爲基礎和條件的。

[拿]對人們生活的影響[來說], 人們從外界獲得的信息量將會大幅度增加。

b 시간사가 쓰임

您就[拿]最近我們家[來說]吧。

[拿]今年上半年[來說], 每月平均營業額只有三萬多億, 和去年同期相差很遠。

c 지시사가 쓰임

不過[拿]這一條法律[來說], 可就不是那麼一回事。

就[拿]那條裙子[來說], 用針線縫補拾掇一下, 總還是辦得到的吧。

就[拿]這件事[來說]吧, 他聽到的我也都聽到了, 他見到的我也都見到了。7)

就[拿]那個博士生[來說]吧, 他之所以能夠走到博士這一步, 是家人付出和社會培養的結果。

수식구조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的’ 앞에 나타나는 한정어가 다양하

7) 수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① [拿]件小事情[來說], 她與媽媽一同出去的時候, 就是遇上她自己的青年朋友。② 在他想, 他向秀華求婚, [拿]句老話[來說], 可以算作“門當戶對”。

다. 명사 ‘金牌’, 형용사 ‘有名’, 대명사 ‘他’, 연합구 ‘刺刀或步槍’, 주술구 ‘我們聽說過’, 술목구 ‘搞文學研究工作’, 수식구 ‘比較多’, ‘所’자구 ‘孟子所講’, 개사구 ‘對人們生活’ 등이다. 또한 시간사 ‘最近’, 지시사가 쓰인 ‘這一條, 那條, 這件’ 등이 나타난다. 수식구의 유형 빈도는 488회이고, 출현 빈도는 515회이며, TTR 값은 94.76이다.

(7) 동위구

- a [拿]我自己[來說], 我必須承認曾經從他手裏得到過一些小恩小惠…
- b [拿]上海這兩個字[來說], 上海話組成這兩個字的音素在北京話裏幾乎都沒有。
- c [拿]我國的名牌健力寶[來說], 國家工商局已認定它的價值為四千萬元人民幣。
- d [拿]馮友蘭先生[來說], 他當時就給哲學下了這麼個定義, 說哲學是說出來的一個道理的道理。
- e 因為就是[拿]您先生自己[來說], 要是您能夠像一只蟹一樣向後倒退。

동위구는 ‘이중재지시구조’인데 지시하는 바가 같은 두 성분으로 구성된 구조이다.⁸⁾ a의 ‘我自己’는 대명사로 구성된 동위구조이고, b의 ‘上海這兩個字’는 고유명사와 ‘這+수량구’로 구성되고, c의 ‘我國的名牌健力寶’는 ‘的’ 수식구와 고유명사로 구성되었다. d의 ‘馮友蘭先生’은 고유명사와 일반명사로 구성되고 e의 ‘您先生自己’는 대명사, 일반명사, 재귀대명사로 구성되었다. 동위구조의 특징은 앞의 수식성분이 전체 동위구조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拿我來說’, ‘拿上海來說’, ‘拿我國的名牌來說’, ‘拿馮友蘭來說’, ‘拿您來說’과 같다. 동위구의 유형 빈도는 73회이고, 출현 빈도는 95회이며, TTR 값은 76.84으로 가장 다양하게 나타난다.

(8) 술목구

- a [拿]尊重儒士[來說], 咱們義軍, 向來對清貧正派的讀書人都是尊重的,

8) 광의적인 의미에서 수식구조에 포함되기도 한다(朱德熙, 2003:144).

愛護的。

- b [拿]繁養10萬頭黃牛[來說], 她確定了西部山區繁殖、東部平原育肥的“西繁東育”戰略。
- c 就[拿]送生日禮物[來說]吧, 他們通常可以猜到每個人最想獲得的是什麼東西。

술목구의 목적어는 명사(儒士), 수량구(10萬頭黃牛), 수식구(生日禮物)가 나타나는데, 한정어에 조사 ‘的’가 쓰인 예문은 1회만 나타난다. 따라서 술목구조의 목적어가 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 한정어와 중심어의 결합 긴밀도가 아주 강함을 알 수 있다. 술목구의 유형 빈도는 64회이고, 출현 빈도는 66회이며, TTR 값은 96.96이다.

(9) 연합구

- a 就[拿]學習和適應機制[來說], 肯定包括了信息與反饋。
- b 就[拿]洗臉洗澡[來說], 許多家庭將購置超聲波洗臉器或超聲波洗浴池。

연합구는 접속사 ‘和’를 사용하거나(英格蘭和威爾士)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洗臉洗澡). 연합구의 유형 빈도, 출현 빈도 모두 14회이다.

(10) 주술구

- a 就[拿]農村人進城[來說], 我們那時不通過高考, 還真沒有什麼辦法。
- b 就[拿]李登輝訪美[來說], 李登輝在行前曾這樣坦露心機...
- c 號令一出, 群情振奮, 就[拿]越劇藝術學校招生[來說], 只有50個名額, 報名者竟達1.2萬人。

술목구, 주술구에서 ‘就拿’구문이 많이 쓰이는데, 주술구의 출현 빈도, 유형 빈도 모두 12회이다. 주술구의 주어는 [+유정]인 ‘農村人’, ‘李登輝’, [-유정]인 ‘越劇藝術學校’가 나타난다.

(11) '的'자구

- a [拿]發生在我們祖國大地的[來說], 在1976年3月8號那天早晨在吉林上空出現了一個火流。
- b 您就[拿]做買賣的[來說]吧, 就有多少種多少樣。
- c 就拿走路來說吧, 我看不見路, 但感應得到, [拿]明顯的[來說]吧, 我的問路棒點到路面, 便感應到了路面的許多信息。
- d 文學裏重要力量的黑人作家和猶太作家也都在短篇小說上有建樹, [拿]我們這個集子裏所選的[來說], 前者如休士、賴特、鮑爾溫, 後者如馬拉默德、辛格都是寫得很出色。

'的'자구는 구체적인 사물, 사건, 현상 또는 사람을 대신하여 지칭한다. a는 사건, b는 사람, c는 일종의 반응, d는 소설을 지칭한다. '的' 앞의 성분을 보면 술보구, 술목구, 형용사, '所'자구(타동사 앞에 음)가 올 수 있다. '的'자구의 출현 빈도, 유형 빈도 모두 4회이다.

(12) 개사구

- a [拿]對人們生活的影響[來說], 人們從外界獲得的信息量會大幅度增加。
- b 就[拿]對學生的評價[來說], “三好”已經不全面了。

개사구는 개사가 모두 '對'인 경우이고 어떤 기준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며 가장 적게 나타났다.

3) 절

x가 절일 경우에는 의미가 가장 구체적이고 x의 술어동사는 구체적인 동작동사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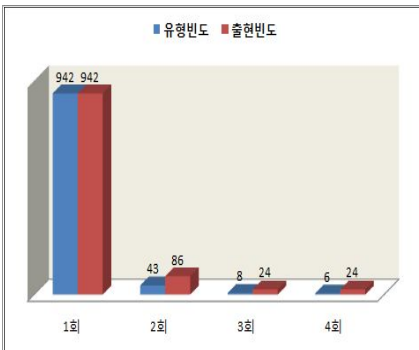
(13) 절

- a [拿]你寫小說[來說], 就是沒高潮, 沒起伏, 沒有任何變化。
- b 就[拿]今天出去作報告[來說]吧! 聽你們講話的都是自己同志們呀!
- c 就[拿]讓農民買彩電[來說]吧, 就得調查一下9億人口中已擁有多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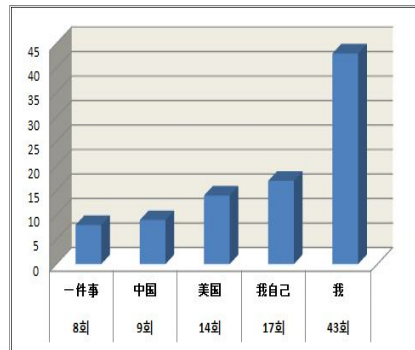
(13)에서 ‘拿x來說’의 x는 화자와 청자가 알고 있는 화제이고 후행하는 서술은 화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해석이다. 절의 유형 빈도, 출현 빈도는 모두 17회이다.)⁹⁾

4) x의 횟수 비교

x가 단어일 때의 횟수를 비교하면 1회 나타난 유형별 x는 942개이고 전체 단어의 93.82%를 차지한다. 2회는 43개, 3회는 8개, 4회는 6개이다. 출현 빈도수가 가장 높은 x는 ‘我’인데 43회 나타났고 ‘我自己’는 17회, ‘美國’은 14회, ‘中國’은 9회, ‘一件事’는 8회로 나타났고 전체 단어의 0.1%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그림 3〉 낮은 횟수 비교



〈그림 4〉 높은 횟수 비교

2. ‘拿x來說’ 구조의 통사적 분포

‘拿x來說’는 일정한 문맥, 문장에서 문두의 또는 문중에 나타날 수 있다.

9) 구나 절 전체가 화제로 쓰이는 경우에 문장이 진술하는 대상을 나타내며 문장의 틀을 설정해주고 화제 조사(topic particle)가 뒤따르기도 하며, 화자와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언급해야 한다. Charles N.Li, Sandra A.Thompson 저(박정구 등 역), 《표준중국어문법》, 한울, 1989, 123쪽.

黃伯榮·廖序東(2007:76)에서는 문장의 어떤 단어나 구가 앞뒤의 단어와 통사적 관계가 없고 성분이 될 수는 없지만 의미상 필수적인 성분이면 삽입어(插入語)라고 하였다. 삽입어는 독립어(獨立語)의 일종이다. 삽입어는 문장을 면밀하게 하고 문장의 의미를 보충하는데 화자의 태도를 포함하며 청자의 주의를 일으킨다. 金昌吉(1996:39)은 문두에 있는 개사구는 전체 구문의 수식어(修飾語)라고 하고 후행하는 전체 구문과 관계가 있고, 문중의 개사구는 문장에서 부사어이며 술어 중심어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위에서 보다시피 문맥에 상관없이 앞에 나오는 말을 부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단어나 구, 절 등을 문장 중간에 삽입할 수 있다. ‘拿x來說’의 분포에 근거하여 문두, 문중 두 가지로 나눈다.

〈표 3〉 ‘拿x來說’ 구문의 분류

‘拿x來說’ 구문의 통사적 분포			
1) 문두-삽입어			2) 문중
(1) 拿x來說+주술구		(2) 拿x來說+비주술구	부사어
① 주술구1	② 주술구2		
선행 문장 관련(×)	선행 문장 관련(○)		

1) 문두-삽입어

(1) 拿x來說+주술구

문두의 ‘拿x來說’에 후행하는 것이 주술구, 비주술구인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눈다. ‘拿x來說+주술구’인 경우에는 ‘拿x來說’에 선행, 후행하는 문장의 주어 공지시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눈다.

① ‘拿x來說+주술구’1: 선행 문장의 주어와 공지시가 아닌 경우

(14) 공지시가 아닌 경우

a [拿]繪畫[來說], 中國的繪畫傳統是樂山樂水, 講求含蓄寄托。

b 就[拿]巴金[來說], 他本來就是寫小說的。

- c 就[拿]韋伯[來說], 大陸學界主要是[拿]他的兩部名著[來]做寶典。
 d [拿]搞文學研究工作的人[來說], 懂現代文學的未必懂古典文學。
 e 就[拿]語言[來說]吧, 一個人在中國是學不到真正的德語的。

(14)의 예문은 모두 ‘拿_x來說’에 선행하는 문장의 주어와 후행하는 문장의 주어가 공지시가 아닌 경우이다. ‘拿_x來說’에 후행하는 주술구를 보면, (a)에서 주어는 ‘繪畫傳統’, 술어는 ‘是’이고, (b)의 주어는 ‘他’, 술어는 ‘就是’이다. (c)의 주어는 ‘大陸學界’, 술어는 ‘做’이고, (d)의 주어는 ‘懂現代文學的’, 술어는 ‘懂’,이며, (e)의 주어는 ‘一個人’, 술어는 ‘學’이다.

‘拿_x來說’ 구조의 x는 후행하는 문장의 주어와 관련성이 있다. 첫째는 x가 그대로 주어가 되는 경우(a), 둘째는 x를 지칭하는 인칭대명사가 쓰이는 경우이다(b). (d)(e)에서 보면 ‘的’자구, 비한정 수량사구인 ‘一個人’도 주어로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에서 보면 ‘拿_{x1}來說’에 후행하는 문장에 ‘拿_{x2}來’와 같은 환치사 구조를 중복하여 사용하는데 x1과 x2는 소유 관계를 맺고 주화제, 부화제가 된다.

삽입어 맨 끝에 어기 조사 ‘吧(罷)’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설명할 때 쓰인다고 한다(劉月華, 2001:426). 溫鎮林(2005:102)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화제 뒤에 휴지가 올 수 있는데, 여운을 둘 수 있는 곳에 ‘吧, 嘛, 呢, 啊’ 등의 어기조사를 넣어 휴지를 더욱 뚜렷하게 하고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화자가 주제를 부각시켜 청자로 하여금 화자의 주된 관심을 알게 하고 주의력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 주어에서 술제(述題)로 넘어가는 과정을 늦추고 청자가 새로운 정보를 잘 받아들이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셋째, 객관적으로 청자가 의미역을 파악하고 주어와 술어의 의미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한다. BCC 코퍼스에서 추출한 예문 1167개에서 ‘吧’는 229회, ‘罷’는 5회 나타났는데 어기 조사는 전체 출현 빈도의 20.05%를 차지한다.

② ‘拿_x來說+주술구’2: 공지시인 경우 [S1+拿_x來說+(S2)+VP]

선행 문장의 S1과 후행 문장의 S2가 공지시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S1과 S2가 연속 나타날 수 없으므로 ‘拿_x來說’도 앞으로 이동할 수 없다.

(15) 공지시인 경우

- a 他們之間越來越相互了解。就[拿]送生日禮物[來說]吧，他們通常可以猜到每個人最想獲得的是什麼東西。
- b 有很重的巫術色彩，人試要用巫術把所謂不祥的境遇克服過來。現在[拿]婚禮[來說]，(人_i)¹⁰照舊時的禮儀。
- c *就[拿]送生日禮物[來說]吧，他們之間越來越相互了解。他們通常可以猜到每個人最想獲得的是什麼東西。

(a)에서 S1-S2 모두 인칭대명사 ‘他們’으로 구성되었고 공지시 관계이다. (b)에서 S1은 ‘人’이고 S2는 ‘人’이 생략되었지만, 문맥에서 S1-S2가 공지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c)에서 볼 수 있듯이 S1과 S2가 연속 나타날 수 없다.

(2) 拿_x來說+비주술구

(16)

- a 任何語言的語法都是經濟和簡易這兩個特點的某種結合。[拿]漢語的語法[來說]，i 沒有詞形變化，自然比有詞形變化的語言經濟。
- b 就[拿]那條裙子[來說]，i用針線縫補拾掇一下，總還是辦得到的吧。
- c [拿]我[來說]吧，i爲什麼城市不住，那樣的榮華不享，來到這荒山溝裏呢？
- e 就[拿]筆者[來說]，i每當被人要求題字的時候，寫前先有三分愧。
- d [拿]我[來說]吧，i上了年紀，粗茶淡飯是最好不過的了。

(17)

- a [拿]眼前這個戲[來說]，i還缺少統一，前半是人戲，後半是鬼戲。
- b 就[拿]武器[來說]，i也比人家差得遠哪？

(18)

- a [拿]出版界[來說]，i就好像“永無寧日”似的，這幾年由於“企業出版”又惶惶然起來。

10) i는 생략된 성분이나 위치를 이동한 빈자리를 나타낸다.

b 就[拿]光的波粒二象性[來說], i就各執一端、爭論不休。

(16)에서 ‘拿…來說’를 생략하면 x는 주어로 유추할 수 있다. ‘漢語的語法沒有詞形變化…’, ‘那條裙子用針線縫補抬掇一下…’, ‘我爲什麼城市不住…’, ‘筆者每當被人要求題字的時候…’, ‘我上了年紀…’ 등 주술구로 바꿀 수 있다. (17)에서 중복을 나타내는 부사 ‘還, 也’가 나타나는데, ‘眼前這個戲還缺少統一.’, ‘武器也比人家差得遠哪?’ 등 주술구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18)를 보면 후행하는 문장에 ‘就’가 나타나는데 a는 주술구로 변경이 가능하나, b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光的波粒二象性’이 관여적이고 주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拿_x來說+비주술구’의 의미 층위에서 보면 x는 vp의 주논항이라고 할 수 있고, 환치사 ‘拿…來說’ 구조는 x에 대한 강조를 나타낸다. x가 환치사 구조인 ‘拿…來說’에 삽입되면 유표적이고 통사적 층위의 주어로부터 화용론적 층위의 화제로 된다.

2) 문중-부사어

문중에서 ‘拿_x來說’이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인데 [P+‘拿_x來說’+Q]로 해석한다.

(19)

- a 他向秀華求婚, [拿]句老話[來說], 可以算作“門當戶對”。
- b 所謂鼓實勁, 不鼓虛勁, [拿]科學的語言[來說], 就是按客觀規律辦事。
- c 這一時期, [拿]恩格斯的話[來說], 德國的政治和社會情況糟透了。

위 구문은 P와 같은 전제조건에서 Q와 같은 결과 또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인데 ‘拿_x來說’는 부사어로 쓰인다. Q는 일반적으로 가능성, 확인, 단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 또는 판단을 나타내는 ‘是, 就是, 算作’ 등이 쓰인다. ‘[拿]…話[來說]’는 화자가 어떤 말을 인용할 수 있는 매개체

가 된다.

IV. ‘拿_x來說’의 의미적 특징

환치사 구조에서 전치사와 조합하는 후치사의 허화 정도도 일치하지 않다. 이러한 불일치는 x와의 의미 관계에 영향을 주는데, 후치사의 허화 정도가 높으면 x는 환치사 구조 이외의 성분과만 의미적 관계를 맺고, 후치사의 허화 정도가 낮으면 x는 후치사와 관련이 있다.

1. ‘拿_x來說’ 구성 성분의 추상성

(20)

- a 大家[拿]各自的證據[來]說事。
- b 眾所周知, 做銷售的壓力特別大, 什麼都需要[拿]業績[來]說話。

(21)

- a 勒令謝的前妻蘭國貞[拿]15萬元[來]了結此事。
- b 企業文化不同, 不能刻意[拿]兩個不同文化的企業[來]比較。

(20)의 ‘說事’, ‘說話’ 등 술목구에서 ‘說’은 ‘말하다’의 뜻이고 동사이다. (21)의 ‘拿...來’는 임시적인 환치사인데, 나아가서 안정적인 ‘拿...來說’ 구조로 발전한다. 또한, 이 형식이 고정화되고 ‘來說’의 ‘說’이 추상화되면서 ‘拿...來說’ 구조도 환치사로 문법화 한다.

‘用...來/而/以’의 후치사 ‘來/而/以’는 의미역이 없는 접속표지이지만, 원래는 앞의 전치사보다 후행 성분과 더 가까워서 ‘[用[汽車]] [來[接送客人]]’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전치사와 자주 공기하면서 ‘用...來/而/以’ 환치사 구조로 나타난다. 따라서 ‘[[用汽車]來] [接送客人]]’으로 재분석할 수 있다.¹¹⁾

우리가 주목할 점은 ‘拿...來’ 구조와 ‘拿...來說’ 구조의 다른 점이다. 후

치사의 통사 영역 면에서의 차이는 실제로 의미 추상도에 의해 결정된다. 대체로 개사의 의미가 추상적일수록 그것이 재배하는 영역이 크다. 이와 반대로 의미가 구체적일수록 영역이 작다.¹²⁾ 후치사가 ‘來’일 때 그 영역은 언제나 앞의 ‘拿’보다 크다. ‘來’가 1급 개사이고 ‘拿’를 비롯한 다른 전치사 대부분이 2급 개사이기 때문이다. 2급 개사인 ‘拿’의 영역은 후치사이고 3급 개사인 ‘來說’보다 크다.

‘來說’의 추상성은 선행하는 성분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 (22) [拿]蒙娜麗莎[來說], 她的微笑之所以神秘, 恐怕與嘴角微微翹起,...
- (23) 就[拿]存在主義[來說], 基爾凱戈爾是一個極端的保守主義者。

(22)의 ‘x-蒙娜麗莎’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닐 때, x는 후행하는 문장인 ‘她的微笑之所以神秘...’의 관련성이 높다. 이때 ‘來說’의 추상성이 높고 x에 대한 해석이 위주인데 A류로 한다. (23)에서 ‘x-存在主義’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x는 후행하는 문장인 ‘基爾凱戈爾是一個極端的保守主義者.’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 개사구인 ‘拿存在主義’는 일종의 수단으로서 ‘來說’의 수식어로 나타난다. 이때의 ‘來說’의 추상성이 낮고 평가형 위주인데 B류로 한다. 위에서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x, ‘來說’의 의미의 추상성과 구체성

기준	유형	x		來說
		추상성	후행 문장과 직접적인 관련성	추상성
A류	해석형	-	높음	높음
B류	평가형	+	낮음	낮음

11) 劉丹青, 〈漢語中的框式介詞〉, 《當代語言學》 第4期, 2002, 250쪽.
 12) 劉丹青, 《語序類型學與介詞理論》, 商務印書館, 2003, 178-181쪽.
 1급 개사는 순수한 연계자 개사이고 2급 개사는 기본 관계 개사이며 3급 개사는 구체 관계 개사이다.

2. 주격, 대격, 관여격에 따른 x

1) 주격

주격은 동작, 사건과 직접 관련되는 행동주 또는 사역주이다. 주격은 행위역에 관련된 것으로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개체이다. 주격은 주어로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문두에서 무표적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장에서 주어의 위치가 변하거나 화제 기능을 강조하기 위하여 개사표지로 나타나면 유표적이다.

(24) 就[拿]我們[來說]吧, 我們仍然無法看清事情的來龍去脈。

(25) 張三是在加州念的大學, i專修語言學。

(24)에서 x와 후행하는 문장의 주어는 공지시 관계이고 모두 인칭대명사이다. 이러한 주체류 의미역은 문맥에서 다양한 투사를 통하여 ‘이중재지시’ 수단을 통하여 다시 나타난다. (25)에서 보면 중국어에서 두 번째 문장의 공지시 명사구는 대명사로 표시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생략된다. ‘拿_x來說’ 후행구문의 주어도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26)

a 就[拿]豬頭小隊長[來說], i那真是比豺狼還野!

b [拿]解放軍[來說], i進城睡在南京路上, 沒有驚動一家老百姓。

(26)에서 동작주와 동작의 관계를 ‘豬頭小隊長-野’, ‘解放軍-進城睡’로 정리할 수 있다. x와 후행하는 문장의 i(주어)는 공지시 관계이고 ‘拿_x來說’ 구조는 단독으로 나타날 수 없다.

2) 대격

대격은 문장에서 동작,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대상이다. ‘대격’

은 수동자역과 관련되고 어떤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상태의 변화를 겪는 객체를 말한다. 대격은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서 목적어로 나타나는데 무표적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장에서 목적어의 위치가 변하거나 화제 기능을 강조하기 위하여 개사 표지로 나타나면 유표적이다.

(27)

- a [拿]民營企業[來說], 社會要你快出效益, 才能承認你。
b [拿]手槍[來說]吧, 鄧巴小姐說她根本不知道手槍。

(27)의 ‘民營企業-你’, ‘手槍-手槍’에서 보면 x와 후행하는 문장의 목적어와 공지시 관계이다. 이런 대격류 대상 의미역은 문맥에서 다양한 투사를 통하여 다시 나타난다. 劉丹青(2001)은 방언에서의 분열식 화제구조(襯衫他買了三件)를 분석하면서 동사 앞의 객체논항은 유형지시(類指性)이고, 중국어에서 가장 쉽게 화제로 되는 성분이며, 뒷부분은 비한정이라고 하였다.¹³⁾

3) 관여격

관여격은 문장에서 동작이나 행위에 간접적으로 소급되는 대상이나 방면을 나타낸다. 후행 구문의 VP와 의미 관계가 느슨하여 일반적으로 개사로 화제를 개입시킨다. 위에서 본 주격, 대격에서 x는 후행하는 문장 VP의 주체, 객체와 공지시 관계이지만 관여격은 이런 공지시 관계가 아니다.

(28)

- a [拿]我們西藥業[來說], 制藥廠有不少成品制不出。
b 就[拿]卷煙業[來說], 上海有多少煙紙店? 誰也說不清。
c 就[拿]抓賭[來說]吧, 早年間的賭局都是由頂有字號的人物作後台老板。

13) 동사의 양쪽에서 화제와 목적어로 나타나는데 지칭 관계, 정보특징 등은 화제 구조의 보편적 원칙에 부합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화제로 진치된 객체는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화제화된 목적어로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28)의 ‘我們西藥業’, ‘卷煙業’, ‘抓賭’는 관여격으로서 후행하는 술어동사 ‘制不出’, ‘說不清’, ‘作’ 등과 간접적인 관계이다. ‘ x 來說’에서 x 와 후행 문장의 NP는 ‘전체-부분’, ‘상위-하위’, ‘유형지시(類指)-해석(詳述)’ 등 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 관여격에서 x 가 유형지시로 많이 나타나는데, 중국어에서 쉽게 화제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劉丹青, 2003:187 참조).

V. 결 론

본고에서는 환치사 ‘ x 來說’ 구조의 통사적, 의미적 특징을 BCC 코퍼스에서 추출한 예문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1. ‘ x 來說’에서의 ‘來’는 이동동사에서 기원하였고 그 자체가 도구 의미를 갖지 않으며 도구 의미역 뒤에서 연결 역할을 한다. ‘來’는 관련된 대상을 나타내는 임시적인 환치사 ‘ x ...來’에서도 사용된다. 환치사 형식이 고정화되고 ‘說’이 추상화되면서 2음절 후치사 구조인 ‘ x ...來說’로 문법화하게 된다.

2. ‘ x 來說’의 구성성분과 통사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x 는 단어, 구, 절 모두 가능하다.

x 가 단어일 때 명사는 일반명사, 추상명사, 고유명사, 시간명사가 쓰이고, 대명사는 인칭대명사 단수형, 복수형, 지시대명사, 재귀사를 이용한 이중재지시 표현이 쓰인다. 동사, 형용사도 가능하지만 빈도가 아주 낮다.

x 의 유형 빈도와 출현 빈도를 보면 [구>단어>절] 순으로 나타난다. 빈도가 높은 단어와 구의 경우에 TTR 값은 구가 단어보다 높다. 명사의 유형 빈도와 출현 빈도를 보면 [고유명사>일반명사>시간명사] 순으로 나타나는데, 고유명사가 전체 명사의 51.28%를 차지한다. TTR 값에서 본 어휘의 다양성은 [일반명사>고유명사>장소명사] 순으로 나타났다. x 가 대명사인 경우 유형 빈도는 7회이고, 출현 빈도는 55회이며, TTR 값은 12.73이다. 동사의 경우는 14회 나타났고 형용사는 2회만 나타났다.

x가 구일 때 유형 빈도와 출현 빈도를 보면 [수식구>동위구>술목구>연합구>주술구>‘的’자구>개사구]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수식구의 경우에 유형 빈도는 74.28%, 출현 빈도는 72.74%이다. 빈도가 높은 구의 TTR 값을 보면 [술목구>수식구>동위구] 순으로 나타났다. x가 절일 경우에 술어동사는 동작동사가 많고 유형 빈도, 출현 빈도 모두 17회이다.

x가 단어일 때의 횟수를 비교하면 1회 나타난 x는 942개이고 전체의 93.82%를 차지한다. 2회는 43개, 3회는 8개, 4회는 6개이다. 출현 빈도수가 가장 높은 x는 ‘我’인데 43회 나타났고 ‘我自己’는 17회, ‘美國’은 14회, ‘中國’은 9회 ‘一件事’는 8회로 나타났지만 모두 전체 단어의 0.1%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2) ‘拿_x來說’는 일정한 문맥에서 삽입어 또는 부사어가 될 수 있다.

(1) 문두의 ‘拿_x來說’에 후행하는 것이 주술구인지 비주술구인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눈다.

① ‘拿_x來說+주술구’는 선행, 후행하는 문장의 주어가 공지시인 경우와 아닌 경우 두 가지로 나눈다. ‘拿_x來說+주술구1’은 공지시가 아닌 경우이다. ‘拿_x來說’에 후행하는 구문의 주어가 x와 관련성이 있으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x가 그대로 주어가 되는 경우, 둘째는 x를 지칭하는 인칭대명사가 쓰이는 경우이다. ‘拿_x來說’에 후행하는 문장의 주어가 x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면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독특한 것은 ‘拿_{x1}來說’에 후행하는 문장에 ‘拿_{x2}來’ 환치사 구조를 중복하여 사용하는데 x1와 x2는 소유 관계를 가진다. 삽입어 맨 끝에 어기조사 ‘吧(罷)’를 사용한다. BCC 코퍼스에서 추출한 예문 1167개에서 ‘吧’는 229회, ‘罷’는 5회로 나타났는데 어기조사는 전체 출현 빈도의 20.05%를 차지한다. ‘拿_x來說+주술구2’는 S1과 S2가 공지시인 경우인데 S2는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S1과 S2가 연속 나타날 수 없으므로 ‘拿_x來說’을 앞으로 이동할 수 없다. ② ‘拿_x來說+비주술구’를 의미 층위에서 보면 x는 vp의 주체논항이고, ‘拿…來說’ 구조는 x를 강조하여 나타낸다. x가 환치사 구조인 ‘拿…

來說’에 쓰이면 유표적이고 통사적 층위의 주어에서 화용론적 층위의 화제로 된다.

(2) 문장에서 쓰이는 ‘拿_x來說’는 P와 같은 전제조건에서 Q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인데 부사어로 쓰인다. Q는 일반적으로 가능성, 확인, 단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 또는 판단동사가 쓰인다.

3. ‘拿_x來說’의 구성 성분과 의미적 특징을 다음과 같다.

1) ‘來說’, x의 의미의 추상성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x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닐 때는 해석형인데, x는 뒤에 오는 문장의 관여 대상이 되고 ‘來說’와는 관련이 적고 ‘來說’의 추상성이 높다. x가 추상적인 개념일 때는 평가형인데, x는 뒤에 오는 문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來說’와는 관련이 있으며 ‘來說’의 추상성이 낮다.

2) 주격, 대격, 관여격에 따른 x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주격은 행동주 또는 사역주인데 문장에서 주어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문두에서 무표적이다. 구체적인 문장에서 주어의 위치가 변하거나 화제 기능을 강조하기 위하여 개사 표지로 나타나면 유표적이다. x와 후행하는 문장의 주어는 공지시 관계이며 인칭대명사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주체류 의미역은 문맥에서 다양한 투사를 통하여 이중제지시로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

(2) 대격은 수동자역과 관련되고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서 목적어로 나타나는데 무표적이다. 구체적인 문장에서 목적의 위치가 변하거나 화제 기능을 강조하기 위하여 개사표지로 나타나면 유표적이다. x와 후행하는 문장의 목적어는 공지시 관계이다. 이런 대격류 대상 의미역은 문맥에서 다양한 투사를 통하여 다시 나타난다.

(3) 관여격은 문장에서 동작이나 행위가 간접적으로 소급되거나 작용 받는 대상이나 방면을 나타낸다. 동사와의 의미 관계가 느슨하여 개사로 화제를 개입시킨다. 주격, 대격에서 x는 후행하는 문장의 주어, 목적어와 공지시 관계로 나타날 수 있지만 관여격은 이런 공지시 관계가 아니다.

<References >

1. BCC corpus. Beijing Language and Culture University corpus Center.
2. Charles N. Li & Sandra A. Thompson(Park, Junggu Trans.). *Mandarin Chinese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hanul, 1989.
3. Chen Changlai. “The development and virtual mechanism of Chinese Prepositions”. *Journal of Liuzhou Vocational and Technical College* Vol. 2 third phase, (2002).
4. Fu Kun. “Journal of Mudanjiang University”. *Journal of Mudanjiang University eighteenth* Vols and first, (2009).
5. gang byung-gyu. “Concordance Programs for Chinese Corpus Analysis”.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in Korea* Vol. 44 No, (2013).
6. Huang Borong, Liao Xudong. *modern Chinese language*. higher education press, 2007.
7. Jin Changji. *Chinese preposition and prepositional phrase*. Nankai University press, 1996.
8. Liu, Danqing. “Circumpositions in Chinese”. *Contemporary Linguistics Fourth phase*, (2002).
9. Liu Danqing. *Word order typology and prepositional theory*. the commercial press, 2003.
10. Liu Danqing. *on the divisive topic structure, zaiqinghezhangbin-xian shengcongjiawushizhounianjibashihuadan*. Shanghai Education Press, 2001.
11. Tao ZhenWei. “The grammaticalization of “take””. *Fourth issue of the Journal of Anhui Institute of Education*, (2006).
12. Wen Suolin (park junggu Tran). *chinese pragmatics*. Sin Seong Publisher, 2005.

13. Wang Qia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拿…來說” and “對…來說””. *The first issue of literary literature*, (2004).
14. Zhu DeXi, *Grammar notes*. the commercial press, 2004.

< 참고문헌 >

1. BCC語料庫(北京語言大學語料庫中心)
2. Charles N.Li, Sandra A.Thompson 저(박정구 등 역), 《표준중국어문법》, 한울, 1989.
3. 陳昌來, 〈漢語介詞的發展歷程和虛化機制〉, 《柳州職業技術學院學報》第2卷 第3期, 2002.
4. 付琨, 〈介詞框架“P…來說”的標記和話題化功能〉, 《牡丹江大學學報》第18卷 第1期, 2009.
5. 강병규, 〈중국어 코퍼스 분석을 위한 검색 프로그램 비교 고찰〉, 《中國言語研究》 第44輯, 2013.
6. 黃伯榮·廖序東, 《現代漢語》, 高等教育出版社, 2007.
7. 金昌吉, 《漢語介詞和介詞短語》, 南開大學出版社, 1996.
8. 劉丹青, 〈漢語中的框式介詞〉, 《當代語言學》 第4期, 2002.
9. 劉丹青, 《語序類型學與介詞理論》, 商務出版社, 2003.
10. 劉丹青, 論元分裂式話題結構, 載 《慶賀張斌先生從教五十周年暨八十華誕》, 上海教育出版社, 2001.
11. 陶振偉, 〈“拿”的語法化〉, 《安徽教育學院學報》 第4期, 2006.
12. 溫鎖林 저(樸正九 역), 《중국어 화용론》, 신성출판사, 2005.
13. 王茜, 〈“拿…來說”與“對…來說”之異同〉, 《語文學刊》 第1期, 2004.
14. 朱德熙, 《语法讲义》, 商务印书馆, 2003.

< Abstract >

The adposition is an important case theory in Chinese language. The direct reason a case theory takes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order typology is the characteristics of adposition relator revealed by Dik's theory of relator. This study is intended to completely analyze the circumposition '拿x来说' of modern Chinese language based on the case theory, the order typology and the adposition theory. This study is specifically intended to thoroughly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拿x来说's syntactic distribution that represents topic and sementic function. In addition, in reference with BCC Corpus, the vocabulary type of and vocabulary token of x in the '拿x来说' structure will be researched, along with the diversity of vocabulary kinds through TTR(Type-Token Ratio).

Key Words : 환치사(circumpotion), 연계사(relator), 대하여 말하다(take something for example), 삽입어(interpolation), 코퍼스(Corpus)